

◆시설명 아유노세(鮎の瀬) 대교



◆설명문

야메마을(矢部町)이라고 하면 석교문화이다. 국가 중요문화재인 츠준교(通潤橋)를 비롯해 수많은 오래된 귀중한 석교가 남아있다. 이와같은 야메마을(矢部町)에 미래의 유산으로서 「아유노세(鮎の瀬) 대교」가 가해졌다. 미도리카와(緑川)가 새긴 깊이 140m의 v자 계곡을 건너는 대교의 모습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배려하면서도 의외성을 느끼게하는 참신한 구조로 되어있다. 카미마시키군(上益城郡) 야메마을(矢部町)센다키(千滝:폭포)와 같은 마을의 수계지구(菅地区)를 잇는 약5.7m의 미도리카와(緑川)農免農道整備事業의 일환으로서 지어진다리는, 수계지구(菅地区)에서 마을 중심부까지의 소요시간을 자동차로 약 20분 단축시킨다.주민의 생활도로로서, 또한 야메마을(矢部町)의 새로운 심볼로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건축 개요

아유노세(鮎の瀬) 대교가 놓여진 미도리카와(緑川)계곡은 아소(阿蘇)남쪽 산기슭에 깊이 140m v자형의 다이내믹한 경관을 보여준다. 이러한 풍경을 살린 다리건설 「다리가 있는 풍경」을 만드는 것이 이 디자인의 목적이다. 계곡의 한쪽편은 시야가 트여 있으나, 반대편은 산으로 둘러싸여있고 그위에 계곡 사면의 중간쯤에 평탄한 바위가 있기에 사장교(斜張橋)와 v자교각을 짜맞춘 언바런스한 형태의 이미지를 지형에 겹치게 했다. 즉, 트인 측에 타워를, 바위 위에는 v각을 세웠다. 절벽 표면에는 바위가 노출되어 있고 그 부분과 콘크리트의 소재의 느낌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보이기 쉽다. 또한 사장교(斜張橋)이 지니고 있는 긴장감을 강조하고 날카롭게 깎은 듯이 솟아있는 계곡의 엄숙함에 대응하고 있다. 케이블은 2면으로 매달려 있으며, 신록을 배경으로 시시각각 표정을 바꾸는 메탈릭오렌지이다. 아유노세(鮎の瀬) 대교는 「다리를 건너는 것」과 더불어 다리와 다리목에 만든 광장에서 「계곡의 풍경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시하고 이다.



◆건축데이터

명 칭 / 아유노세(鮎の瀬) 대교
소재지 / 上益城郡矢部町
주요용도 / 교량
사업주체 / 구마모토현(熊本県)
설계자 / 오노 미요코(大野美代子)+ 중앙기술 컨설턴트
시공자 / 住友건설+佐藤기업 J V
다리길이 / 390.00m
유호너비(폭) / 8.00m
타워높이 / 138.00m
구조 / P C 사장교(斜張橋)+Rahmen교
시공기간 / 1993년12월~1999년6월
총공사비 / 5,420백만엔

◆건축가 프로필



성명: 오노 미요코(大野美代子)

1963년 다마(多摩)미술대학 디자인과 졸업

1966년 오토·그라우스건축설계사무소(스위스)

1971년 엠 앤드 엠 디자인사무소 설립

◆주요 작품

요코하마(横浜) 베이브릿지, 수도권속 가츠시카(葛飾)하프교, 요코하마(横浜)시 프랑스橋歩道橋, 히로시마시(広島市)츠루미바시(鶴見橋), 오다와라(小田原)블루웨이 브릿지, 나고야(名古屋)항 중앙대교 외

◆수상경력

1985년 일본 인테리어 디자인너 협회상

1977, 1986, 1989, 1994, 1996, 1997, 1998년 일본토목학회 다나카상 등